

지역 소식통

부안군 '참풍부안' 한우
친자확인 DNA검사 추진

부안군은 2021년 참풍부안 한우 혈통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한우 친자확인 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우 22,800두의 친자확인 DNA검사를 추진한다. 한우 친자확인은 어미 소와 송아지의 모근을 채취해 13개의 유전자 마커를 분석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한우 농가에 정확한 혈통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암소 개량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양 관리이다.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친자확인 DNA 지원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고, 또한 인공수정사와 한우농가의 인식변화를 통해 암소 능력에 맞는 정확한 정액 사용을 유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참풍부안 한우 개량 가속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농식품 가공
창업장 11개소 육성

부안군에서는 18년부터 20년 까지 관내 희망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소득 향상을 위한 농식품 가공 창업장 11개소를 육성하였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 가공 창업사업' 사업으로 3년동안 군비 7억 7,000만원을 확보해 가공사업장 신축, 가공설비 구축, 저온저장고 등 신규장비를 지원했다. 잠재된 지역경제에도 불구하고 11개 가공창업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올해 현재 13억 매출액과 2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해당은 배리, 흡연호프 등 음료 및 주류 가공 5개소, 명당연향 등 생산농산물 가공 3개소, 삼삼향 등 빵과 떡류 가공 2개소, 참찰은고기 등 육가공 1개소 등 부안농산물에 희망을 본 청년농업인, 귀농인, 여성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부안 대표 가공상품 생산 창업에 도전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시 차단방역 총력

동립저수지 지상·공중 완전통제... 초소 3개소 운영
공동방제단·드론·광역방제기·살수차 등 총동원

고창군이 인근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고창군 가축방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읍 옥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3~10km) 가금농가 6호(29만3,000수)와 역학관련 농가 5호(24만4,000수)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거점소독시설 3개소 확대 운영을 비

롯해 가금전담 공무원 7명을 동원해 일일 예찰을 강화했다. 당초 오리·산란계를 대상으로 실시된 출하검사와 이동승인을 가금 전체로 확대하는 등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은 고위험 철새도래지인 동립저수지에 대해 지상과 공중에서 완전통제를 진행중이다. 이미 3개의 통제초소를 운영하며 차량과 사람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고 공동방제단

(3개반), 드론(8대), 광역방제기(3대), 살수차(1대) 등이 총동원돼 빈틈없는 방역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밖에 가금농가 주변 소류지, 소화천 등 예찰을 강화하고, 가금관련 종사자가 방문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드론 2대를 추가 투입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국내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최근 농가에서 확진되는 등 추가 발생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역 농장에선 생석회 도포, 축사내·외부 매일 소독,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농장 4단계 방역을 철저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천 이양교 교량 바닥에 낮 동안 자외선을 흡수해 두었다가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축광석을 도포해 어두운 밤에도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다.

다양한 경관조명 색다른 품격

정읍천 이양교 · 샘골다리, ㄷ · ㄹ하다리 야간 명소 인기

계절별로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있는 정읍시가 최근 다양한 야간 경관조명을 통한 색다른 매력 뽐내고 있다. 시는 야간 경관조명을 밝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응원한다. 특히, 매년 봄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나들이객에게 즐거운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정읍천의 이양교와 샘골다리, ㄷ · ㄹ하다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양교는 교량 바닥에 낮 동안 태양 등으로부터 자외선을 흡수해 두었다가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축광석을 도포해 어두운 밤에도 은은하게 빛을 내도록 했다. 야간에 이 길을 걸으면 영롱한 별이 빛나는 낭만적인 공간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은하수를 걷는 느낌이 든다고 하여 은하수 길이라 불린다. 오색빛깔 빛으로 변신한 샘골다리와 ㄷ · ㄹ하다리도 많은 시민이 야간 산책을 즐기며 야경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다. 화려한 조명으로 직접 눈으로

보는 야경도 멋지지만 바람이 없는 날 야경 사진을 찍으면 데칼코마니 같은 아름다움을 보이는 곳이다. 수성동 주공아파트 사거리에 조성된 은하수 조명과 4m 크기의 흰고래 조형물, 2.5m의 곰 조형물도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컬러의 빛을 연출하며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특히 푸른 바다를 연상시키는 넓게 펼쳐진 은하수 조명 위에 흰색으로 밝게 빛나며 솟구치는 고래 조형물은 경이로움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상상의 나라로 떠나는 꿈을 꾸게 한다.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시를 주제로 조성된 정읍시공원 내 정읍시예술회관과 시립미술관도 야간 경관 명소로 손꼽힌다. 정읍시예술회관에는 웅장하면서도 고즈넉한 정취와 어울리는 야간 경관조명을 넣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시민들의 야간 산책 코스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정읍의 야경 명소로 정읍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즐거움도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집중호우 피해 교량 재가설 본격

우대교 · 사내4교 상판 처짐 등 심각... 예산 19억원 확보



고창군 이산면 '우대교'와 고수면 '사내4교'는 지난 8월 초 역대급 집중호우로 상판 처짐과 교각이 침하돼 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8월 초 역대급 집중호우에 따른 교량 피해 관련, 수해복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 이산면 '우대교'와 고수면 '사내4교'는 1990년대 후반 경지정리 때 설치돼 마을과 농경지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였다. 하지만 이번 수해로 상판 처짐과 교각이 침하돼 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피해 규모는 약 6억원에 달했다. 고창군은 기존 교량 철거와 재설치를 위한 예산 19억원(국비 9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확보해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교량 복구사업이 올해 안에 발주돼 내년 영농철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수해 복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샘골농협 '생누룩 퇴비' 인도네시아 수출

정읍시는 샘골농협에서 생산하는 생누룩 퇴비가 인도네시아로 본격 수출됐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샘골농협은 지난 2일 샘골농협 가속분뇨자원화센터에서 '생누룩 퇴비 인도네시아 수출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과 허수종 샘골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농협 관계자들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메시아사 보좌관, 합영수 플랜23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생누룩 퇴비 수출은 올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와의 구상무역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2018년 인도네시아와의 수출 협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룬 성과로 샘골농협 생누룩 퇴비가 해외로 수출되는 첫 사례다. 이번에 수출되는 생누룩 퇴비는 16톤 컨테이너 3대 분량으로 국내에서도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효자상품이다. 올해 매출액은 40여만원을 넘어섰으며, 샘골농협은 연말 국내 10위권 퇴비 생산업체로 발돋움하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 수출은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농산물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출장벽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허수종 샘골농협 조합장은 "오늘의 첫 수출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교류영역을 더 넓혀갈 예정이며, 샘골농협 퇴비의 우수한 품질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는 상호 국제교류를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의 중이며, 향후 국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부안군,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 선정

부안군은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운영사업 공모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상주단체 포스덴스컴퍼니의 부안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부안, 도깨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운영사업은 전북도의 한옥자원을 활용해 독창적인 주말 야간상설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설 운영해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도비 총 6억5,000여만원이 지원되

며 지난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서류심사와 인터뷰,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쳐 전주, 남원, 부안, 임실, 고창 등 총 5개 시군지역의 단체가 선정됐다. 부안은 1억3,000여만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된다. 부안지역의 도깨비불설화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부안, 도깨비'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울려져 공연자와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부안, 도깨비'는 내년 6월부터 10월 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